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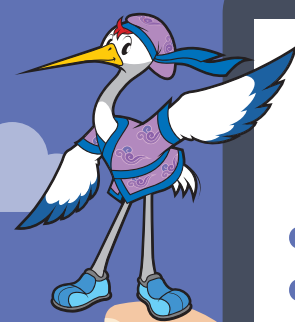
내 손안의 구정 연수한마당 구독신청 이벤트

〈연수한마당〉신규로 구독 신청을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시그니처 핫 초콜릿(T) 1잔’을 ‘150분’께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1. 11. 8. 월 - 11. 30. 화**

이벤트 상품 스타벅스 시그니처 핫 초콜릿(T)

당첨자 발표 12월 3일(금)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상품은 2021년 12월 10일(금) 까지 일괄발송



연수한마당 구독 신청 방법

- 1 우편으로 받기(무료)
- 2 문자로 받기
- 3 <http://www.yeonsu.go.kr/publicity/sub/yard.asp> 또는
아래 QR코드로 접속 후 원하는
서비스 클릭!



연수한마당 구독신청



| 문의 |
홍보미디어실
032-749-7402

연수 한마당

YEONSU HANMADANG

12

Vol. 308 | 2021 DECEMBER
www.yeonsu.go.kr

YEONSU HANMADANG

COVER STORY
일상으로 들어온 문화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아트플러그 연수



“연수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한마당”

CONTENTS

04 연수의 재발견 E

품격 업그레이드!
경관개선 사업으로 훨씬 더 예뻐진 연수구

10 플러스 줌인 E

문화, 일상이 되다!
레지던시 예술창작공간 ‘아트플러그 연수’

14 먼우금 사람들

아름다움을 초월한 울림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이경아’ 명창

16 공간공감

연수구 해넘이 명소

18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먹자골목
함박마을

20 연수 On Air

슬기로운 나눔 생활!
똑똑한 나눔 실천 ‘연수e웃나눔’

22 우리 동네

연수 2동, 옥련 1동, 동춘 2동,
송도 3·5동 소식

24 구정·의정소식

구정·의정 이슈

26 알림게시판

연수구 복지, 육아, 행정, 기타

30 연수생각

전통 성년식으로 되새겨보는 성년의 의미

31 책 읽는 문화구민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민고 보는 문학상 수상작품

32 인물포커스

문화예술 동행도시 연수를 이끌
연수문화재단 임철빈 신임 대표이사

34 문화마당

도서관 행사 및 문화 행사 안내

36 생활 속 꿀tip E

의미가 더해진 공간의 변신
텅 비었던 공간이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

38 Yeonstargram

아기탄생기념 축하사진

39 다른그림찾기

구독자 이벤트

E 외국인을 위한 영문지면(Eng.ver)

04 Rediscovering Yeonsu E

The City's Revitalization!
Yeonsu-gu's Enhanced Beauty through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10 Plus Zoom-In E

Culture and Your Everyday Life as One!
‘Art Plug Yeonsu,’ Artist in Residency

36 Great Tips for a Better Life E

Transformation of space with
added meanings
Culture and arts planted in a former
empty space in the neighborhood

다음 중 올바른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① 이름표 ② 절취 ③ 공란

바로잡습니다

연수한마당 속 국·영문에 대한 오·탈자 및 오류
를 발견한 경우 연구구청 홈페이지[바로잡습
니다] 게시판에 응모해주세요.

제보기한 2021년 12월 10일까지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또는
연구구청 홈페이지 - 참여·알림 -
구청소식지 - [바로잡습니다]

※ 회원가입 후 응모 가능,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상품권
미수령 등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홈페이지 오류 등으로 게시판 응모 불가 시 이메일 응모
가능(yeonsuhanmadang@korea.kr)

21p 표기 오류
2/3은(×) -> 2/3는(○)
윤*미 님 제보

영문오류 및 제안
심*현, 황*숙 님 제보

※ 동일한 오·탈자에 대한 제보자가 3인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독 신청 및 이벤트 참여

① 우편으로 받기(무료)
② 문자로 받기
③ 구독자 이벤트 참여

구독안내

구청소식지 ‘연수한마당’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을 원하시는 분은 본 소식지에 기재된 ‘구독신청 및 이
벤트’ 참여 QR코드 스캔 후, 접속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독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구구청 홍보미디어실 ☎ 032-749-7402

메일 yeonsuhanmadang@korea.kr

어학퀴즈 정답 : ① 이름표(←명찰)

절취는 ‘자르기, 자름’으로,
공란은 ‘빈칸’으로 순화해 사용해 주세요.

포토 인트로



사람 in 연수 100인전



사람이 힘이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간을 살리는
모든 힘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갖지 못한 재능을 탓하며
무한을 꿈꾸지만
유한한 삶을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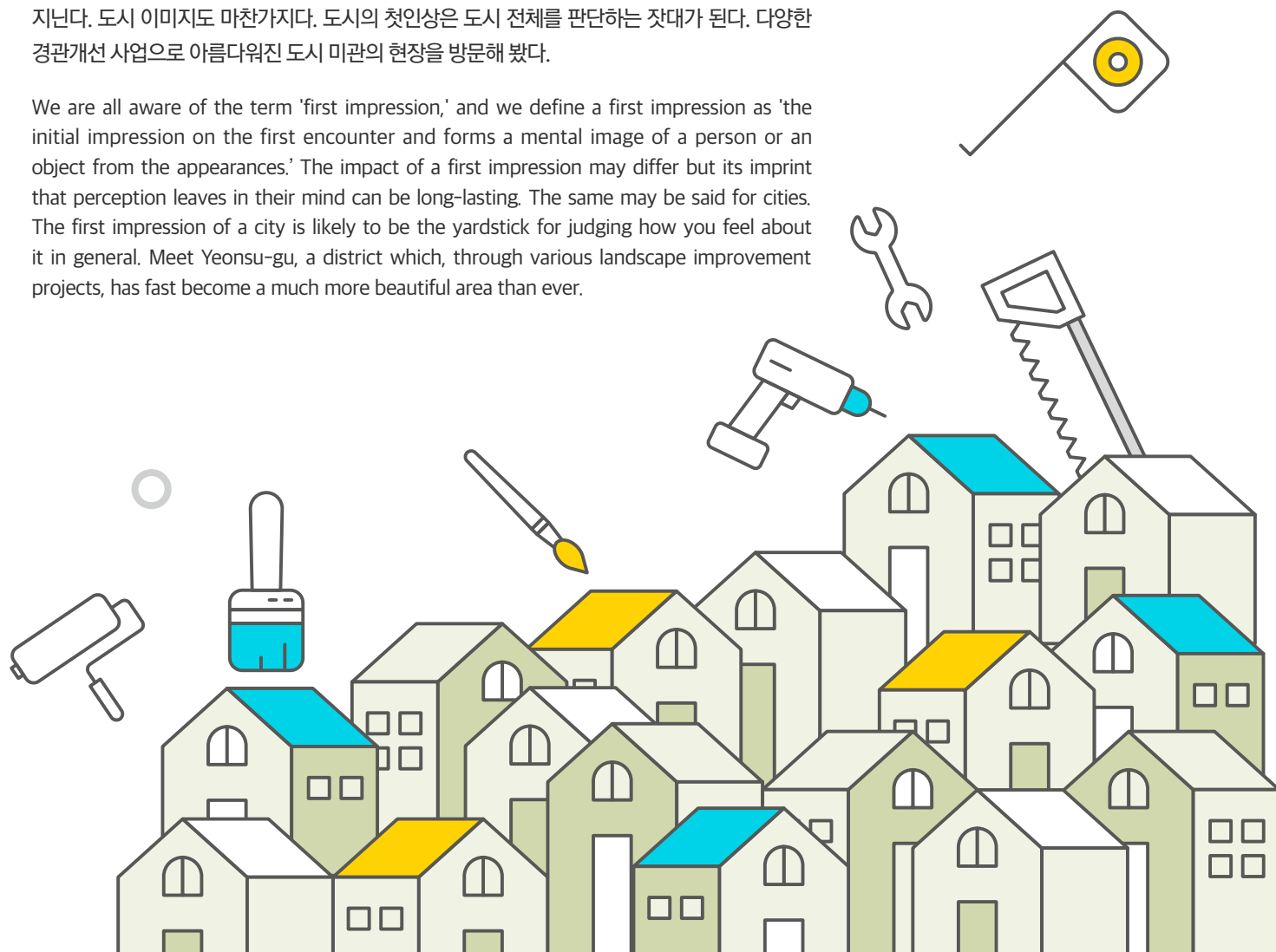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살아내 빛을 발하는
그는...사람이다

품격 업그레이드! 경관개선 사업으로

The City's Revitalization!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이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외관, 외형에서 받는 첫 번째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첫인상은 굉장한 각인 효과를 지닌다. 도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 전체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으로 아름다워진 도시 미관의 현장을 방문해 봤다.

We are all aware of the term 'first impression,' and we define a first impression as 'the initial impression on the first encounter and forms a mental image of a person or an object from the appearances.' The impact of a first impression may differ but its imprint that perception leaves in their mind can be long-lasting. The same may be said for cities. The first impression of a city is likely to be the yardstick for judging how you feel about it in general. Meet Yeonsu-gu, a district which, through various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has fast become a much more beautiful area than ever.



훨씬 더 예뻐진 연수구

Yeonsu-gu's Enhanced Beauty through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01

깔끔한 간판 정비로 방문하고 싶은 상가 조성 Upgraded Signs to Create Attractive Shopping Malls

연수구는 최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풍림 2차 아파트 상가와 청학동 상가 일원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지역 상가변영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불법·노후 상가 간판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가 거리에 특색에 맞는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 정비했다.

동춘동 풍림 2차 아파트 상가 22개 업소와 청학동 상가 72개 업소가 대상이 됐다. 상가 특색에 맞는 입체형 LED 간판 설치를 통해 다소 산만하고 정신없던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판 정비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상가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Yeonsu-gu has been working on revamping the streets with its sign maintenance project. As part of it, the Yeonsu-gu recently completed the project to improve not only Poonglim Second Apartment Shopping District but also Cheonghak-dong Shopping District. In collaboration with the active cooperation of local business associations, Yeonsu-gu encouraged the storeowners to overhaul their existing illegal or outdated signs that severely diminished the aesthetics of the city, and has replaced three-dimensional LED signs for them that better match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pping street.

This district venture was carried out on 22 stores in the Poonglim Second apartment complex in Dongchun-dong and 72 stores in the Cheonghak-dong shopping district. The installation of three-dimensional LED signboards is intended to convey the uniqueness of each shopping street and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mewhat dishevelled atmosphere while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Why not try checking out the new signage and refreshed streets of Yeonsu-gu?



상가 간판정비 전



상가 간판정비 후



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 후



지하차도 경관개선 사업 전

02

지하차도에 색과 빛을 입히다

Underpasses in More Colors and Lights

1998년 12월에 준공돼 올해로 23년 된 선학지하차도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가 진행됐다. 선학지하차도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특색이 전혀 없어 눈에 띄지 않던 곳이다. 연수구는 이 지하차도에 색과 빛을 입히는 진·출입로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지하차도와 어울리는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어둡고 칙칙한 지하차도의 상단부분을 인천시 표준 색채(신도시 권역)를 적용한 인천 대표색으로 바꾸고 이름을 크게 넣었다. 그리고 야간에는 LED 조명으로 빛을 더해 시인성은 물론 삭막한 밤거리를 밝히는 효과를 줬다. 덕분에 주, 야간 모두 환하고 산뜻한 지하차도 경관이 완성됐다. 한 번쯤 자동차를 이용해 선학지하차도를 지날 때면 예전과 달라진 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Completed in December 1998, the 23-year-old Seonhak Underground Road is starting to show the wear and tear with the passage of time. With no notable features to speak of and an ever increasing amount of traffic, Seonhak Underpass had never been particularly memorable. Yeonsu-gu carried out a project to reinvigorate the scenery surrounding the entrance to the underpass by applying color and light. A new exterior including the revitalized underpass adds a beautiful piece to the city's image. In the past, the entrance to Seonhak Underpass was dark and dingy. This exterior improvement project applied the representative colors of Incheon(the new town area) to the upper part of the entrance and furnished the underpass with a large sign displaying its name. These LED lights at night increase the visibility of the entrance not to mention illuminate the desolate night streets in the surrounding area. This lighting also allows drivers to enjoy the bright and refreshing underpass both in the day and at night. If you ever get a chance to pass Seonhak Underpass, it might be interesting to compare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03

마음을 움직이는 벽화,
환경개선 효과 톡톡!

A Mural Brightens Your Heart and Neighborhood!

연수 1동 비류마을에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연수구에 터를 잡은 이야기와 백제사신길을 주제로 한 벽화가 있다. 벽화가 그려지기 전에는 노후하고 삭막한 옹벽이 그대로 방치됐었다. 환경이 불량하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 주민들의 민원도 빈번했던 곳이다. 이에 주민들 스스로 주변 환경을 바꿀 사업을 제안하고 벽화 그리기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벽화 덕분에 푸근하고 정감 있는 마을 환경이 완성됐다. 연수구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낸 벽화라 교육적 효과도 있어 아이들과의 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없다.

On entering Biryu Village in Yeonsu 1-dong, we are greeted by a mural illustrating the story of Biryu (Jumong's son in Goguryeo), who settled in Yeonsu-gu and the march of Baekje envoys. The mural was found intact, painted on an old and neglected retaining wall. Given the tumultuous past surrounding the wall it has endured numerous accidents and incidents. Naturally, there were frequent complaints from residents. The residents proposed a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directly participated in working on the mural painting. The finished mural exudes an inviting and warm atmosphere to the town. Furthermore, this mural depicts the history of Yeonsu-gu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so families with children can enjoy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district.



벽화 경관개선 사업 전



벽화 경관개선 사업 후



04

글로벌 교육도시 연수구의 도시브랜드 강화 대학 레터링 조형물 설치사업

Strengthening the City Brand of Yeonsu-gu for Global Education University Lettering Sculpture Installation Project

연수구에는 국내외 여러 우수 대학(국내 대학 7개소, 외국 대학 4개소)들이 입지해 있다. 송도 주민이라면 알만한 내용이지만, 타지역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이에 연수구는 대학들이 모여 관문적 역할을 하는 송도국제교 진·출입부인 캠퍼스타운역 일원에 대학교 상징물(University Identity, UI)을 설치했다. 송도국제도시로 진·출입 시 글로벌 교육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형물 설치가 진행됐다.

일부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서는 아이들 장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힘들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연수구에서 11군데의 대학을 탐방해 볼 수 있다. 각 학교별 특색을 알아보고 캠퍼스도 구경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Yeosu-gu is home to several leading universities (seven domestic and four international campuses). The prominence of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imbues the residence of Songdo with great pride, however this may not be well known to residents of other regions. In order to promote Songdo's value as a global educational city, Yeonsu-gu has established University Identities (UIs) at the Campus Town Station of Songdo International Bridge as a symbolic educational gateway to the world. These sculptures were set up in hope of imprinting the image of Songdo as a global educational city to those who pass through the bridge when entering or leaving Songdo International City. Some travel agencies and international study preparation programs visit universities to help students explore their opportunities and further their careers. One perk is that students who visit Yeonsu-gu can explore 11 universities at once without having to travel to other regions. Yeonsu-gu has an excellent educational infrastructure allowing students to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and tour the camp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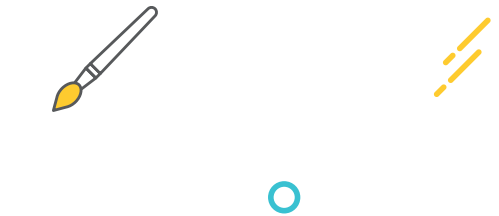
05

도시에 색을 더하다, 교각 색채 디자인 Pier Color Design Making the City More Vibrant

연수구는 송도국제교(송도1교)와 컨벤시아교(송도2교) 교량 하부 총 10개소 교각에 대한 색채 디자인 및 도장작업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교각 색채 디자인 사업으로 어둡고, 삭막한 교량 하부가 활력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기존 교각의 이미지는 ‘다리를 떠받치는 큰 콘크리트 기둥’ 정도로, 딱히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교량 하부에 스토리를 담은 색채와 빛을 활용해 감성 충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자, 도시의 색깔을 담아내는 수단의 다양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사업은 19년 6월 연수고가교, 함박마을 진입계단 및 19년 2월 경원고가교, 동춘고가교 색채 사업에 이은 세 번째 사업으로, 인천 대표 10색을 활용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원도심 색채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연수구를 지날 때면 예쁜 색깔 옷을 입은 연수구의 교각을 감상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Yeosu-gu finalized the designing and coloration project of 10 piers, including Songdo International Bridge (Songdo 1 Bridge) and Convensia Bridge (Songdo 2 Bridge). The pier's color design project has transformed the dark and dreary undercarriage of the bridges into a vibrant and lively space.

Generally speaking, piers are uninspiring places composed of drab concrete columns which support the main structure of a bridge. Yeonsu-gu transformed this dull space into a space full of emotions by painting story-inspired colors and light. This project symbolized the diversification of new ideas and illustrates how a city can express itself in various ways.

Yeosu-gu conducted the inaugural coloration project for Gyeongwon Overpass and Dongchun Overpass in February 2019, with the second project for Yeonsu Overpass and the stairs at the entrance of the Hambak Village in June 2019. For the third project, Yeonsu-gu improved the color of the environment of the original urban center by reflecting the image of a beautiful city utilizing the 10 colors that represent Incheon. The colorful piers of Yeonsu-gu will bring more joy to drivers passing by Yeonsu-gu.





문화
—
일상이
되다

레지던시 예술창작공간

아 | 트 | 플 | 러 | 그 | 연 | 수

Culture and Your Everyday Life as One!

‘Art Plug Yeonsu,’ Artist in Residency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는 문화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멋진 전시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정신적 풍요와 만족감은 물질에서 얻는 게 아니다. 일상에 스며든 문화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준다.

Imagine that, while strolling around in your neighborhood, you can stop by a cultural space full of wonderful pieces of art. It will surely impact the quality of your life. Mental enrichment and satisfaction are not obtained from material things. Culture that permeates everyday life may seem insignificant, but it gives a certain sense of happiness.



뜻밖이라 더 반가운

‘이곳에 이런 곳이!’ 첫 느낌은 그랬다. 음식점과 주택가가 혼재한 연수구 옥련동 언덕에서 만난 뜻밖의 공간, 아트플러그 연수. 문을 연 지 채 한 달이 안 된 이곳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 예술창작공간이다.

레지던시는 문화예술인에게 자유로운 작업 환경과 상호 교류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공간을 이르는 말이다.

아트플러그 연수는 문을 열자마자 첫 입주 작가 8팀의 전시를 열었다. 아트플러그 연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관전이기도 한 전시는 크게 창작분야 작가 6인의 작업 소개와 프로젝트 분야 작가 2팀의 프로젝트 프리 리서치로 구성됐다.

뚜렷한 경향과 주제를 나타내는 기획전과 달리 프리뷰는 작가들의 작업 경향과 방향을 소개하는데 집중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선 형태의 아트플러그 연수 전시장의 특성을 살려 관객으로 하여금 동선의 흐름에 따라 시선의 확산과 집중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은 평면, 입체, 다원예술, 영상 등 동시대에 대한 입주 작가들의 예술적 시각과 미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Delight in Encountering with the Unexpected

“What a surprise to find this space here!” It may be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come across this place. Walk up the hill of Ongnyeon-dong, Yeonsu-gu, where restaurants and residential houses co-exist. You will encounter an unexpected space that opened less than a month ago: ‘Art Plug Yeonsu, Artist in Residency.’ Artist residencies provide artists to freely engage in their creative projects and find opportunities for growth through communicative and cooperative activities. Upon opening, Art Plug Yeonsu held its first exhibition of eight resident artists. Celebrating the opening of Art Plug Yeonsu, this exhibition consiste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reative work of six artists and project pre-research conducted by two project artist teams.

While special exhibitions convey specific artistic trends and themes, previews focus on individual artists’ tendencies and directions of work. Art Plug Yeonsu’s exhibition space is structured in a slanted form, enabl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expansion and concentration of sights. In this exhibition, you will enjoy the resident artists’ contemporary perspectives and aesthetics from various concepts, such as flat, three-dimensional, multi-dimensional arts, and videos.



가치를 더한 쓰임의 재활용

아트플러그 연수가 자리한 이곳은 한때 인천 최고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던 '가천인력개발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쓰임을 다한 공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연수구와 학교법인 가천학원의 협의로 10년간 무상임대가 진행돼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다. 연수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새롭게 변모시켜 동시대 예술의 풍경을 대면하는 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과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됐다. 현재 전국에 대략 150여 개 레지던시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운영 하므로 관성화·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트플러그 연수는 기존 레지던시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연수구의 문화적 자산과 재원을 개발해 연수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의 운영과 사업 관련해 외부 자문도 받고 작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레지던시 운영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또 2021 파일럿 입주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아트플러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실험도 진행 할

예정이다. 아트플러그 연수는 기획자를 위한 레지던시도 운영해 예술창작공간과 문화예술교육 등 유기적인 사업기획과 예술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예술 활동의 순환과 환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연수구의 문화 자산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 연계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11월 말경 작가 도슨트 프로그램과 다원 예술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다. 2022년 1~2월에는 파일럿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과 평론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예정 돼 있다. 아트플러그 연수는 열린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러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도 아무런 제약도 없는 이곳은 예술을 꿈꾸는 작가들에게 창작의 공간이 되고, 관람객에겐 동시대 예술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문화가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일부러 찾지 않아도 되는, 익숙한 문화를 꿈꾸는 공간이다.

Recycled and Value-added Usage of a Space

The building of Art Plug Yeonsu was formerly Gach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fostered the highest-level medical professionals in Incheon. When this institution was closed, the existence of this building was forgotten in the citizens' memory. Fortunately, the building has had a chance to be brought back to life. Thanks to the agreement between Yeonsu-gu and Gachon Cultural Foundation, the building has been made available to lease for ten years to revive it to a new entity.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n artistic creation space where you can experience contemporary art trends.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the masterplan for full-scale remodeling and design work was prepared to transform this building into an artistic space. There are currently about 150 artist residencies in Korea. Operated by public institutions, these spaces tend to be rather standardize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ent residencies, Art Plug Yeonsu tries to develop Yeonsu-gu's special assets and financial resources to demonstrate its own cultural identity. To this end, Yeonsu-gu adopts the external advice regarding the operation and business of this artist residency and continues to listen to the artists' opinions. In addition, the 2021 pilot residency artist program is expe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various experi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rt Plug in the future.

Art Plug Yeonsu also runs a residency for planners. This program aims to strengthen the network with the art ecosystem as well as planning on organic businesses, including operation of creative art spaces and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While inducing the circulation and feedback of artistic activities through these various experiments, Yeonsu-gu plans to carry out a project to modernize the cultural assets in the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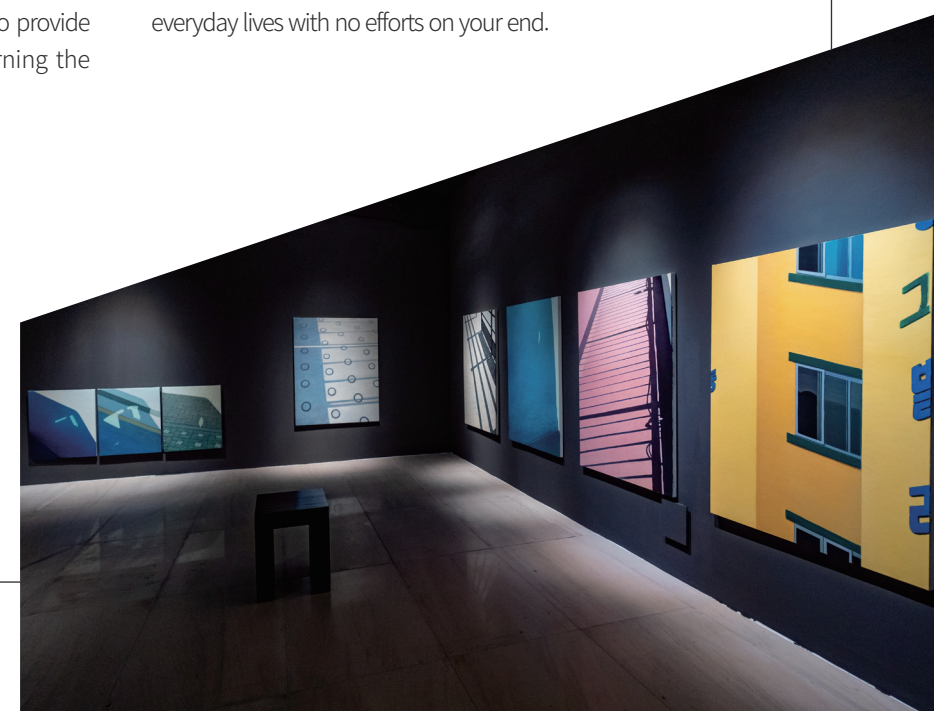
In addition, Yeonsu-gu is also planning programs to engage residents through cultural communication. At the end of November, Yeonsu-gu plans to host an art docent program and multi-art performance. Programs scheduled for January and February 2022 include an exhibition to report the performances achieved by the pilot resident artists and a talk show with the artists and critics.

Art Plug Yeonsu is open to anyone. Feel free to stop by and appreciate the works created by the resident artists. You are free to enjoy the art at no admission fee: it is free! In this unconstrained space, artists realize their dreams through creative activities, and visitors share and appreciate their contemporary art. This creative space does not require you to dress up or travel far to meet the art. This space has been prepared so art and culture can penetrate deeply into your everyday lives with no efforts on your end.



아트플러그 연수 Art Plug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1번길 33
33, Cheongnyang-ro 101beon-gil, Yeonsu-gu
☎ 070-4466-1665
www.ysfac.or.kr
www.instagram.com/artplug_yeonsu



아름다움을 초월한 울림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이경아’ 명창

판소리를 노래가 아니라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왜일까?
판소리 속에 노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기에.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온갖 자연과 사물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목소리에 담아내 그 이면까지 드러내는 음악이 판소리라고들 한다.

글·사진 김일형 연수한마당 기자



소리꾼의 덕목은 인내와 겸손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경아 명창은 놀랍게도 연수구에 사는 친근한 이웃이었다. 스승이자 어머니 조영자씨, 이모 조소녀씨의 ‘국악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우월 의식을 가질 법도 한데, 인터뷰 내내 이경아 명창에게선 겸허하고도 온유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판소리 이론가 단재 신채호가 소리꾼의 으뜸 덕목으로 ‘인물치레’를 꼽지 않았던가.

이 명창의 화려한 수상의 영광 뒤에는 이경아 명창만의 독특한 수련 과정이 있다. 북 20여 대를 한꺼번에 연주하는 ‘합북’ 연주와 더불어 연습하며 소리에 힘을 기르는 것이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 성대를 변형시키는 고통까지 감내했다. 가늘면서 굵고, 곱다가도 거칠고, 맑다가도 탁하고, 신선하고도 곱삭은 목소리 속에 과연 무엇을 담고자 하는 걸까.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연수한마당 인터뷰 참여 안내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연수구민을 찾습니다.

기 간 연중
대 상 연수구민 누구나
내 용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구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먼우금사람들> 지면에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 게재
준 비 물 취재기자가 인터뷰 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사진
신청방법 yeonsuhanmadang@korea.kr에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기 채택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 의 홍보미디어실 ☎ 032-749-7402

※ 사진과 인터뷰 내용은 연수한마당 지면 발행본과 전자책 모두에 게재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삶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인(藝人)

이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는 ‘동초제’를 계승하고 있다. 창법에 따라 분류하는 유파 중 하나인 동초제는 웅장한 동편제와 섬세한 서편제의 장점을 살려 집대성한 김연수 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음이 정확하고 가사 전달이 확실한 동초제는 창극 판소리 창법으로 가사와 문학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명창은 소리꾼으로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에서 빠진 ‘장끼전’을 복원하여 분석해 석사 논문에 실었다. 수집한 ‘장끼전’ 자료를 바탕으로 가사의 내용과 형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탐구했다. 이경아 명창은 오래된 것을 고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다. ‘아리랑 플라즈마’ 활동을 통해 현대음악인 록과 전통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펼쳤다. 옛것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시도이자 오래된 것에 현재의 모습을 담아보려는 실험이다. 또한 이 명창은 교육 현장에도 몸담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할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대면 공연 녹화와 심사위원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오랜 인고 끝에 득음의 과정을 거쳐 온갖 사물과 자연의 소리를 목소리에 담아내 그 이면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명창 이경아!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예인이다.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까지 훔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연수구 해님이 명소

매해 연말연시 때면 해님이 명소, 일출 명소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매일 보던 해가 연말연시라고 달리 보이는 건 아닐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새해에는 무탈하기를 빌고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올해도 자신만의 의식을 치를 이들을 위해 연수구의 해님이, 일출 명소를 소개해본다.

글·사진 송병관 연수한마당 기자

일출부터 일몰까지 황홀한 풍경 자랑하는 청량산 전망대

연수구의 아름다운 해님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중 으뜸은 청량산 전망대이다. 청량산은 청학동에 위치한 172미터 높이의 높지 않은 산으로 연수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덕분에 호불사길 533개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오르면 예전 인천 송도유원지를 감싸고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서해 섬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조망이 좋아 일출부터 일몰까지 모두 볼 수 있어 구민들에게 아낌 없는 사랑을 받는 명소이다. 2021년 한 해의 마감을 청량산 전망대에 올라 서해 바다 노을빛을 바라보며 맞이해보기를 추천한다.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대교와 조상들이 황포 돛단배를 타고 건넌 옥련동 능허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청량산에서의 해넘이는 새삼 색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청량산 전망대

2021. 12. Vol.308

16 | 17

아트센터인천

화려한 도시와 자연의 조화, 일몰과 야경이 멋진 아트센터인천

아트센터인천은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마에스트로의 지휘하는 손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됐다. 독특한 외관과 바다를 잇는 전망, 세계적 수준의 음향 시스템과 미려한 내·외부 공간을 갖춘 아트센터인천은 글로벌 복합 문화공간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광장 가는 길 우측 벽면은 인천거리 미술관으로 드가와 고흐, 모네의 명화들이 전시되어 해넘이를 보러 가는 발걸음을 즐겁게 한다. 해넘이는 워터프론트에 비치는 황금물결의 잔영으로 시작해 서쪽 하늘 너머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잠시, 뒤이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와 도시의 조명이 멋진 야경을 자아낸다.

아트센터인천을 중심으로 우측에 위치한 오션스코프와 좌측의 술찬공원도 해님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명소들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



청량산 전망대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7
(청량산 정상)

전 화 032-749-8713

찾아가는 길

- 인천 시립박물관 등산로(정상까지 약700m이며, 경사가 급함)
- 흥륜사 등산로(정상까지 약300m이며, 비교적 완만하며 최단코스)
- 영일정씨묘역 등산로(정상까지 약1,200m이며, 비교적 완만하나 장코스)

아트센터인천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송도동)

전 화 032-453-7700

찾아가는 길

-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도보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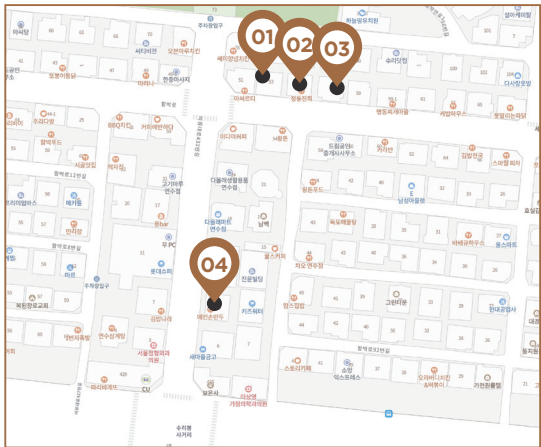


함박마을

연수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함박마을은 조선시대부터 ‘함박리’라고 불리던 오래된 지역이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함박마을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과 외국인이 함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터키 등의 이색적인 빵을 만드는 빵집들도 있어 미각을 즐겁게 한다.

글·사진 박영규 연수한마당 기자

※ 연수e음 혜택+(플러스)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결제액의 3~7% 먼저 할인 후, 인천시의 기본 캐시백 10%에 연수구가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18~22%의 할인·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영업시간은 평상시 기준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미 사장

01



*함박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길만 걸어도
하나 고기마당으로 맛있는 국내산 한우 드시러 오세요.*

하나 고기마당

연수e음 혜택+ 가맹점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한자리에서 27년, 연수 4단지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인 ‘하나 고기마당’은 정육점과 함께 식당을 하고 있어 항상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있다. 소고기 등심, 특수부위, 삼겹살이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다.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하는 갈비탕과 육개장이 식사 메뉴로 인기다. SNS 홍보 없는 숨은 맛집으로 믿고 찾는 단골들이 많다.

위치 연수구 함박로 53
운영 10:00 ~ 23:00(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 032-819-3344



직접 만드는 안전한 먹거리, 언제든지 믿고 찾아주세요.

예인 손 만두 찐빵

포장·배달 가능 | 테이크아웃 전문점 | 연수e음 혜택+ 가맹점 | 배달e음 가맹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찐빵을 호호 불며 먹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예인 손 만두 찐빵’은 12년 된 손 만두, 찐빵 맛집이다. 만두소부터 만두 피까지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만두와 찐빵, 술빵으로 이미 단골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매콤한 만두를 좋아한다면 고추만두와 고추 군만두를 주문해도 좋겠다. 모든 만두와 찐빵은 주문 시 바로바로 데워준다. 신선한 야채와 국내산 암태지 고기만을 사용하여 보다 맛있는 만두를 빚어낸다. 예전에는 테이블이 있었으나 지금은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위치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10 운영 10:00 ~ 22:00(연중무휴)
문의 ☎ 032-811-7404

반용환 사장

02



싱싱한 생선회를 마음껏 즐기러 오세요.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동진 회 세꼬시

포장·배달 가능 | 연수e음 혜택+ 가맹점 | 배달e음 가맹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함박마을에서만 2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횡집이다.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 중인 ‘정동진 회 세꼬시’는 매일 연안부두에서 싱싱한 생선을 직접 골라 자가 활어차로 공수해 와서 요리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집이다. 광어, 우럭 회 등 각종 생선회와 생우럭탕, 물회 등이 인기 메뉴다. 쫄깃하고 신선한 회를 맛있고 푸짐하게 먹고 싶다면 정동진 회 세꼬시로 가보자.

위치 연수구 함박로 55
운영 16:00 ~ 24:00(연중무휴)
문의 ☎ 032-818-3497

이윤정 사장

04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춘 러시아 요리 맛있게 해드립니다.

본 아피티(Bon appetite)

포장·배달 가능 | 연수e음 혜택+ 가맹점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함박마을은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다. 러시아 출신의 고려인 텐 율리아 사장이 3년 전 문을 연 ‘본 아피티’는 러시아식 요리를 전문으로 한다.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도 30%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식 밀면은 돼지 안심과 오이절임, 달걀, 볶음김치 등을 고명으로 얹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다. 토마토 육수와 간장 육수가 있다. 러시아식 양 꼬치구이 샤슬릭, 치즈 스킷 구이는 최고 인기 메뉴다. 다른 러시아 식당과는 달리 기름기나 특유의 향이 덜하고 맛이 깔끔해서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

위치 연수구 함박로 57
운영 12:00 ~ 24:00(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 070-7785-9117

텐 율리아 사장

03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수복지로

즐거로운 나눔 생활! 똑똑한 나눔 실천 '연수e웃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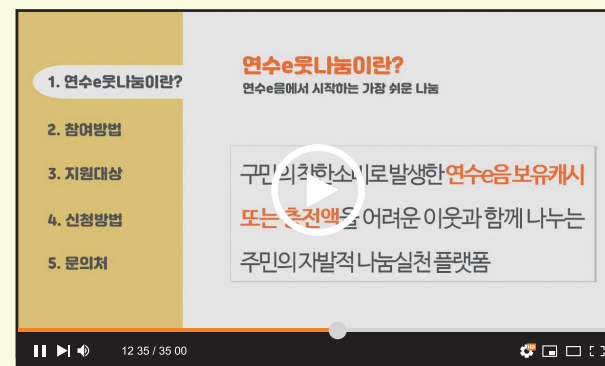
나눔의 실천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돈이나 현물로 직접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플로깅, 줍킹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시간과 노력, 금전의 소비가 뒤따른다. 만약 추가적인 소비 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떨까? 건전한 소비로 나눔까지 가능한 '연수e웃나눔'에 대해 알아보자.



착한소비로 '연수e웃나눔'을 실천하세요

'연수e웃나눔'이란, 구민의 착한소비로 발생한 연수e음 보유캐시 또는 충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의 자발적 나눔 실천 플랫폼을 말한다.

연수e음 앱에 들어가면 하단에 '연수e웃나눔' 메뉴가 보인다. 메뉴를 누르면 진행 중인 기부리스트가 보이고, 이 중 보고 싶은 기부를 클릭한다. 이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을 확인 후 '기부하기'를 클릭해 기부 수단과 금액을 입력하면 기부가 완료된다.



유튜브

+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연수복지로'를 검색해보세요!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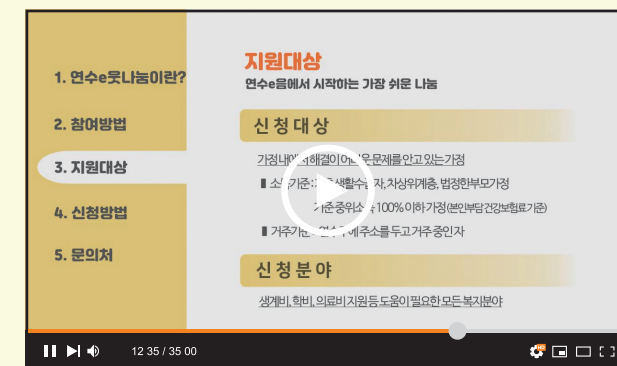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할 땐, 손을 내미세요

살다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가정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보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려 한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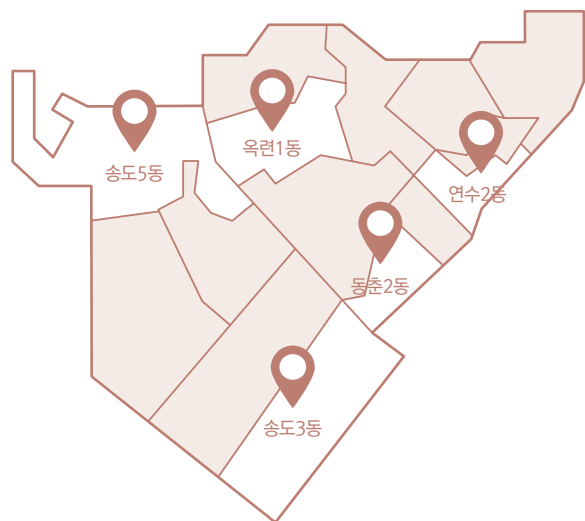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연수e웃나눔 모금배분사례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자.

문의 복지정책과 ☎ 032-749-7667



살기 좋은 연수동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시작하는
연수의 소식이 내일의 발전을 만듭니다.
살기 좋은 도시, 연수구가 되기 위해
언제나 구민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2동 마을소통카페 '연(e)소담' 개소



연수 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을소통카페, '연(e)소담'이 문을 열었다. 11월 20일 (토)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카페 운영에 들어갔다. '연(e)소담' 카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만들어진 카페다.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소통카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주민들은 카페에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연수 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카페 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강의실 등이 마련됐다.

문의 연수 2동 ☎ 032-749-6228

옥련 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옥련 1동 새마을부녀회 20여 명은 지난 11월 22일~23일 양일간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김장김치를 나누며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김장을 위해 준비한 배추는 350 포기, 박스로 100박스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다. 부녀회원들은 힘든 기색 없이 즐겁게 김장을 마무리했고,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됐다.

문의 옥련 1동 ☎ 032-749-6015

동춘 2동 공공형 애플어린이집 '아나바다 시장놀이' 수익금 기부

동춘 2동 소재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인 애플어린이집은 지난 11일 자체 행사인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경제교육과 나눔 교육을 위해 진행한 시장놀이에서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은 수익금 40여만 원을 모았다. 어린이집은 모아진 수익금을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길 부탁하며, 동춘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애플어린이집은 지난해에도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김창기 애플어린이집 원장은 "아나바다 시장놀이로 물건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의 동춘 2동 ☎ 032-749-6432



송도 3동 외식 지원사업 감사편지 릴레이로 훈훈

송도 3동은 지난 5월 지역 소재 켄텐 송도트리플스트리트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 취약가구의 외식을 지원하는 '오! 해피데이'사업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5가구를 선정, 월 4회 켄텐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켄텐 송도트리플스트리트점 김기봉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오! 해피데이' 외식 쿠폰을 받은 한 수혜자는 켄텐 사장님이 외식쿠폰 이외에도 사비로 아이들에게 간식 세트를 선물해 주는 등 진심하고 따뜻한 호의에 감동해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에 후원자인 켄텐 사장님도 감동의 답장편지를 보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문의 송도 3동 ☎ 032-749-6783

송도 5동 키즈하임어린이집, 마켓데이 수익금 전액 기부

송도 5동 소재의 키즈하임어린이집 원생 일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달 29일 열린 마켓데이 행사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키즈하임어린이집 마켓데이 행사를 통해 20명의 원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큰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계획됐다.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되어 송도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경주 키즈하임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송도 5동 ☎ 032-749-6992



YEONSU NEWS BRIEF

구정소식

연수구청 씨름단, 창단 25년 만에 첫 천하장사 배출

연수구청 씨름단이 창단 25년 만에 첫 천하장사를 배출하며 인천 민속 씨름의 부활을 알렸다.

연수구청 씨름단 백두급의 김찬영은 지난 7일 울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김진(중평군청)을 3대 1로 제압하며 모래판 최정상에 올랐다. 지난 1984년 이후 인천 연고 실업팀으로는 첫 천하장사이자 37년 만에 인천이 맛보는 씨름판 최고의 타이틀이다. 지난해 10월 인하대 출신의 최근식 감독 체제로 개편한 연수구청 씨름단은 올해 들어 10개의 전국 대회에 참가해 개인전 우승 4회 등 모두 20여 차례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경기력을 인정받아 왔다. 씨름단은 내년에 5명을 추가로 영입해 모두 13명의 선수단으로 본격적인 인천 일반부 씨름의 중흥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과 ☎ 032-749-7323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 인천 초등 주말리그 통합 우승

두운성 감독이 이끄는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LNG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1년 인천 초등 주말리그 결승에서 부평초를 4:1로 따돌리고 전·후반기 12승 1무 1패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광역시 축구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을 비롯한 인천 지역 내 유수의 유소년 축구팀 18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16년 창단한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은 그동안 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요람 역할을 해 왔으며 올해도 6학년 선수들이 울산, 안양, 성남 등 프로 축구 산하 축구단으로의 진학을 일찌감치 결정지었다.

문의 문화체육과 ☎ 032-749-7322



연수구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연수구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펫티켓 홍보와 동물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교양 강좌를 개최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관련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연수구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양육·비양육 가구의 배려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수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한다. 행사는 오는 12월 4일(토) 오후 2~4시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명사 초청 강연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동물보호법, 펫티켓, 반려동물 상식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는 아래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선착순 80명까지)



오프라인 참가 신청 <http://www.clearcity.kr>
온라인 참가 행사 당일 유튜브 "연수구"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
문의 경제지원과 ☎ 032-749-7803

연수구 어린이집연합회·육아종합지원센터 연합 ICLC와 함께하는 '영유아 가족 아이 사랑 한마당' 개최

연수구 어린이집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27(수) ~ 10.30(토)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시민 평생 학습박람회'에서 ICLC와 함께하는 '영유아 가족 아이 사랑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수구 어린이집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음을 모아 언택트(Untact) 공모전과 전시회로 진행했다. 영유아 가족 아이 사랑 한마당은 이번 ICLC 주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에 맞춰 연수구 영유아에게 기후 변화 대응, 환경사랑,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지킴이'로 정하고, '그린(Green) 그리아', '지구지킴이 약속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 공모전 당선작은 연수구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출산보육과 ☎ 032-749-7751



의정소식



제24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개최

연수구의회가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44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와 2021년도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11월 19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진행하고, 12월 3일 제2차 본 회의와 12월 15일 제3차 본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제3회 추가 재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연수구의회 의사일정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su.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다.

연수구의회 「문화사랑방」 운영

연수구의회는 연수구민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회건물 1층에서 「문화사랑방」을 운영한다. 안락한 소파형 의자와 탁상을 구비한 문화사랑방은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담소 공간을 제공한다.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잡지책, 정기간행물, 각종 도서도 비치했다. 또한 법령집과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비치해 구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문화사랑방 ☎ 032-749-6764

의회방청 및 견학신청

연수구의회가 의회방청·견학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개인과 단체신청으로 나뉘며, 개인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전화 신청, 단체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공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방청 당일 입구에서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 수령, 패용 후 방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 032-749-8372





알림게시판

연수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구민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복지·Welfare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 심리지원

기 간	연중 [월~금 09:00~18:00]
장 소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선학동, 기억과 마음 치매정신통합센터 3층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용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감 및 그 외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진단검사 등 제공

문의·신청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32-899-9430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기간	수시 (정원초과 시 대기자 관리)
모집인원	3명 (입주정원 5명, 1인 1실)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의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발달장애인 우선 대상
사업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입주기간	6개월
위 치	연수구 예술로22번길 62
문 의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옹호자립지원팀 ☎ 032-833-3051 / 직통 070-7124-028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기간	수시 (정원초과 시 대기자 관리)
모집인원	2명 (여성, 입주정원 3명)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의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우선순위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사업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입주기간	6개월~24개월
위 치	연수구 연수동 소재 아파트
문 의	(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 ☎ 032-214-0068



육아·Parenting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지원금액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조건	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시기 신청 월 익월 20일 (계좌입금)
문 의 출산보육과 ☎ 032-749-7734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모집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www.ys-scc.com) 회원가입 - 프로그램누리기 (상위탭) - 교육신청 - 해당강좌 Click - 신청하기(선택순 접수)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강의실
인천형 부모교육 인아놀자Ⅱ	2021. 12.1.(수), 3.(금), 8.(수), 10.(금) 10:30~12:30	연수구 관내 영유아 양육자 7명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또는 아이사랑꿈터 또는 연수구육아종합 지원센터나눔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
인천형 부모-자녀체험 안목이와 함께 하는 아이사랑안전 ① 스마트폰안전	2021. 12.1.(수), 8.(수), 16:00~17:10	연수구 관내 유아1인과 양육자1인 5가정	
맘휴-부모 힐링프로그램 (팝아트편)	2021. 12.3.(금) 10:30~12:30	연수구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명	연수구청 별관 2층 배움1실
행복한 문화 나들이	2021. 12.8.(수)	연수구 관내 영유아와 양육자	연수아트홀

※ 교육 및 행사 일정, 장소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070-5056-3414~6

유모차, 대형 장난감 깨끗하게 소독하세요!

세균 번식이 쉽고 부피가 커 세척도 어려운 유모차! 이제 가까운 연수구 관내 기관에서 깨끗하게 소독하세요!

이 용 료 무료

제품특징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진드기 등 박멸

설치장소

동명	장소	위치	비고
선학동	선학별빛도서관	연수구 남말로 30	749-6710
옥련동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186번길 14	749-6025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옥련로 82	749-6081
청학동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294번길 26	749-6300
	연수구 보건소	연수구 함박외로 13	749-8000
연수동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함박외로 127	749-6150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원인재로 158	749-6200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원인재로 283	749-6250
동춘동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구청점	연수구 원인재로 115	749-6766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먼우금로 117	749-6350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먼우금로 41	749-6400
	연수 어린이 도서관	연수구 먼우금로 164	749-8200
송도동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	749-6500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신송로 248	749-6550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749-6779
	해돋이 도서관	연수구 해돋이로 51	749-6950
	송도 국제어린이 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749-8220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749-6914

※ 설치장소는 웹맵(<http://yeonsumap.raonhosting.com/html/>), 연수구 테마지도 - 육아도우미지도 탭에서 확인가능

문 의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 032-749-7731



양육상담

모집기간	2021년 1월~12월(상시 운영)
모집대상	연수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장 소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감돌
내 용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영유아 발달, 기질 등
문 의	☎ 032-715-8262(김미란 상담전문요원)

방과후교실 아동 모집

모집기간	상시
대 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아동
비 용	전액 무료
프로그램	① 학교 진도에 맞춘 학습지도 ② 미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③ 성장기 아동을 위한 맛있는 급식 및 간식 ④ 함께하는 생활을 통한 건강한 또래관계 지도 ⑤ 체험활동 및 행사 등의 즐거운 경험 제공
문 의	선학동 방과후교실 ☎ 070-4340-8030 (선학로 14, 선학아파트 내) 연수 2동 방과후교실 ☎ 032-811-8012 (원인재로 212, 연수 1차 아파트 내) 연수 3동 방과후교실 ☎ 032-816-2791 (원인재로 315, 연수주공 1차아파트 단지 내)



행정·Administration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

무서운 밤길, 범죄 위험으로부터 가까운 편의점 “안심지킴이집”으로 대피하세요.
운영시간 24시간(편의점 영업시간), 연수구 122개소 운영
운영장소 CU, GS25, 7-ELEVEN, MINISTOP
운영내용 안전대피 → 경찰신고 → 안심귀가 지원
이용방법 편의점 밖에 현판 부착된 “안심지킴이집” 이용
문 의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 ☎ 032-749-6732
※ 안심지킴이집 지속적 신규 추가 지정 예정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안심지킴이집’ 이렇게 이용하세요

여성·아동이 긴급하게 도움 요청

안심지킴이 집 안쪽으로 긴급 대피

비상벨을 통해 경찰 112신고

경찰출동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2022년 수레바퀴 꿈 교실 신규 강사 모집

수레바퀴 꿈 교실이란?

관내 경력단절 주민과 학부모 등이 유치원 및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교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모집기간 연중(2021.12월 집중모집)

참여자격 연수구 거주 경력단절 주민 및 학부모

참여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후 담당자 승인

※ 수레바퀴 꿈 교실 홈페이지(<https://www.yeonsu.go.kr/wheel/>)

강사마당 → 강사등록 신청 → 담당자심의·확인 → 승인 → 강사학교 이수 → 학교출강

활동분야 학생지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 (음악,미술,문화·예술,독서지도, 놀이활동,체육,생태·숲체험,인성,진로,요리,코딩 등)

※ 단,종교·정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제외

활동장소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활동내용 강의 등 학생지도(강의 일자 및 상세 내용은 학교와 협의)

문의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032-749-7244

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보조금24 서비스]

보조금24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서비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서비스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방 법 - (온라인) 민원인이 직접 정부24(www.gov.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내 용 대상자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접수기관, 문의처 등 조회 가능

문의 기획예산실 ☎ 032-749-7062



민원실 「금요 야간 연장근무」 운영

운영시간 매주 금요일 18:00~21:00(공휴일 제외)

대상업무 여권 접수 및 교부, 통합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접수(혼인)

문의 민원여권과 ☎ 032-749-7553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의 별도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해주세요.



문의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032-749-7872



기타·Other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가입대상 ①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②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①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②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①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②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일시 연중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장소 센터 내 및 외부기관
문의·신청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30

2022학년도 남인천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1년 3학기제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주/야간 모집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인원	6학급 (240명)	주간반:4학급	6학급 (240명)	주간반:4학급
		야간반:2학급		야간반:2학급
수업연한	2년(1년 3학기)		2년(1년 3학기)	
입학자격	①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 고시 합격자 ② 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 학교 초등학력인정 과정 이수자		① 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 기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 된 자	
구비서류	①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초등학교 인정 성인 문해학교 이수증 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여권용 사진 5매		①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여권용 사진 5매	
수업료	무료(의무교육)		수업료 교육청 전액 지원 교과서비 교육청 전액 지원	
원서접수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 선착순 모집 마감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편입생 입학 수시 상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남인천 중·고등학교 ☎ 032-863-9941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지원

일시 상시
대상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내용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
장소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문의·신청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30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적 제설 참여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설 시, 연수구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여기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1. 11. 15. ~ 2022. 3. 15.)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설범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 구간
- 시설물 지붕

문의 안전관리과 ☎ 032-749-8862





글·사진 심명구 연수한마당 기자

전통 성년식으로 되새겨보는

2021년 연수문화원 전통 성년식이 11월 6일(토) 원인재(인천시 문화재자료 제5호)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11월의 패적인 가을 날씨에 남녀 4명씩 총 8명의 성년자가 전통 성년식에 참가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80여 명의 성년자를 배출해낸 전통 성년식은 연수문화원의 대표 적인 전통문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년이 됨을 축하하는 전통 예식이다. 성년식은 사회인의 책무를 일깨우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진행되었던 의식이다. 남자는 땅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들고 관(冠:모자)을 씌운다는 뜻으로 관례(冠禮)라 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짓고 계(笄: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笄禮)라 한다.

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인 관빈(冠賓)과 계빈(笄賓)이 관례를 주관하는 가운데 전통 성년례를 가졌다. 전통 성년례는 주례 및 집례단의 입장 후 성년자 입장이 이어졌다. 이후 성년례는 전통 예법에 따라 어른이 되어 옷을 입는 '시가례(始加禮)', 외출복을 입는 '재가례(再加禮)', 관복을 입는 '삼가례(三加禮)', 술

성년의 의미

마시는 법을 배우는 '초례(醺禮)', 어른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관자례(字冠者禮)'를 마친 후 성년 서약과 덕담의 순으로 끝을 맺었다.

전통 성년식에 임한 한 참가자는 낯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어른이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국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이었으며, 부모들은 성년이 된 자식의 의젓한 모습에 흐뭇해지는 표정이었다.

성년자들이 성년례 진행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축하공연으로 알펜로제 어린이 요들단의 요들송이 흥을 돋웠고, 연수문화원 춘하추동 무용단의 화려한 무용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비전나래 시니어 합창단, 연수문화원 한마음 풍물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전통 성년식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조복순 연수문화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5월에 성년의 날 기념일에 맞춰 제때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오늘 좋은 날씨에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의 일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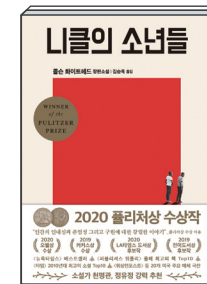


믿고 보는 문학상 수상작품

코로나19로 세계가 모두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집콕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문학상, 혹은 과거 수상 작품들을 한해를 마무리하며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12월의
추천
도서



니클의 소년들 - 2020년 풀리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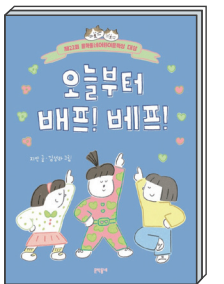
[일본] 소설 콜슨 화이트헤드 저 | 은행나무

2020년 풀리처상 수상작 <니클의 소년들> 저자 콜슨 화이트헤드는 2017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풀리처상 수상으로 더블 풀리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작가다. 미국 플로리다주 탤라해시의 니클 캠퍼스에서 의문의 묘지가 발견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알릴 때가 왔음을 깨닫는 엘우드 커티스가 전달해주는 이야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책을 읽기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가게 해주었음에 이를 추천한다.

오늘부터 배프! 베프!?

[아동] 그림책 지안 저·김성라 그림 | 문학동네

제22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서진이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친구이다. 그러나 학교 앞 분식집에서는 계산 할 수 없다. '급가(급식카드)'를 쓰는 1학년 소리와 4학년 오빠는 공원에서 밥을 먹는다. '급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도 없는, 사용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영 개운하지 않은 카드이다. 작가는 제도의 허점을 주인공 서진이의 시점에서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으며 흑백논리에서 벗어난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이다.



도서관을 훔친 아이

[청소년] 인문/사회 소설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저·클로이 그림 | 김정하 옮김

2018년 스페인 아동 청소년 문학상, 독일 화이트 레이븐상, 알라델타상수상작으로 여러 세계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저자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중 한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두 소년과 한 도서관 사서의 따뜻한 이야기로 문학계에 잔잔한 여운을 주었고, 여러 문학상을 받았다. 달동네에 생긴 커다란 도서관, 그리고 달라진 두 아이의 삶을 주제로 개인과 사회의 선한 의지가 바꾸는 어린이의 삶을 잔잔한 여운과 책을 덮으며 독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는 책입니다. 연말을 맞아 다시한번 읽어보는건 어떨까요.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책 읽어주는 언니오빠



도서명(자은이)

-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매튜코델 글/그림)
-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도깨비 (전금자 글/그림)



문화예술 동행도시 연수를 이끌

연수문화재단의 수장



신임
대표이사
임철빈

누구나 마음속에 꿈꾸는 도시가 하나쯤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멋진 건축물, 즐길 문화가 많은 도시. 모두가 그런 곳을 꿈꾸고 좋아해 일부러 찾아 여행을 가곤 한다. 만약 내가 사는 도시가 힘들여 찾지 않아도 주위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연수문화재단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연수구만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갈 연수문화재단의 수장 임철빈 대표이사를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예비문화도시 연수구

구민이 주축이 되는 문화도시,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연수문화재단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신임된 임철빈 대표이사(이하 ‘임 대표’)는 영월 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올해 10월 1일 연수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됐다. 연수구는 2020년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1년간 다양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연말

연수한마당

2021. 12. Vol.308

32 | 33

“

주변에서 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일상이 축제인 도시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연수구를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



법정문화도시 본 도시로 선발되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예비문화도시를 16곳 중 6곳 정도만 법정문화도시가 되는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예비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다. 법정문화도시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임 대표는 차분하게 재단이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설명한다.

임 대표는 “법정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밑 작업은 끝났습니다. 구민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거쳐 데이터화 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과 문화적 미래에 대한 고민만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임 대표는 ‘송도’는 연수구의 브랜드이자 자산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예술자유구역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인천은 공항, 항구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용이한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해 글로벌 아트마켓을 만들고, 국내 및 해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자존감이 높은 도시, 문화가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연수문화재단의 지향점이라 말하는 임 대표다.

그는 “아트플러그 연수가 그 출발점입니다. 구 단위의 작가 레지던시는 드물고 아주 선도적입니다. 창작활동의 자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창작공간인 아트플러그 연수가

제2호, 제3호까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 아트마켓을 열어 예술이 취미를 벗어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예술유통시장을 만들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대표는 “쿠바는 경제력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문화가 일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일상이 축제인 도시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연수구를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연수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반가운 일상, 즐거운 동행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은 재단 창립 2주년을 기념하여 ‘연수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반가운 일상, 즐거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11월 한 달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또한 예술창작공간 아트플러그 연수에서는 11월 28일까지 개관전이 진행되고, 26일에는 연수아트홀에서 프랑스 상송을 소개하는 ‘상송 타고 떠나는 프랑스 여행’ 재즈 공연과 12월 17일 제비의 관점으로 새롭게 흥보가를 풀어내는 ‘친구따라 제비간다’ 공연이 진행된다.



YEONSU HANMADANG CULTURE

DECEMBER

12

이달의
문화마당

[연수문화재단]

금요일예술무대 #플레이연수
<친구따라 제비간다(feat. 흥보가)>

공연일시 2021.12.17.(금) 19:30
 공연장소 연수아트홀(연수구청 지하1층)
 출연진 움직임팩토리
 입장료 전석무료
 ※사전예매 필수(연수문화포털), 티켓 오픈 12.2.(목) 14시
 입장연령 8세 이상
 공연내용 제비의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낸 '흥보가'. 자메이카 태생의 여러 리듬을 판소리에 녹여 선보이는 '스카판소리' 무용극
 문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될 수 있음

[송도컨벤시아] 12월 개최 전시회
2021 인천베이비페어

일시 2021.12.2.(목) ~ 12.5.(일) 10:00 ~ 18:00
 장소 송도컨벤시아 1, 2홀
 상세정보 www.icbaby.co.kr
 문의 ☎ 051-740-7704

[송도컨벤시아] 2021 K-뷰티&코스메틱쇼

일시 2021.12.9.(목) ~ 12.11.(토) 10:00 ~ 17:00
 장소 송도컨벤시아 2, 3홀
 상세정보 www.k-beautycon.com
 문의 ☎ 02-6000-6693, 6716

[송도컨벤시아] 2021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

일시 2021. 12.11.(토) ~ 12.12.(일) 10:00 ~ 18:00
 장소 송도컨벤시아 4홀
 상세정보 www.iisf.co.kr
 문의 ☎ 032-260-0672

※ 전시회 개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송도컨벤시아 홈페이지 참고

[연수문화원] 2021 연수프린지페스티벌
Musical in the Garden

공연팀 이성준 X Brandon Chamber Ensemble
 일시 2021.12.1. (수) 19:30
 공연내용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벤허>, <메리셀리>등을 작곡한 음악감독 이성준의 작품을 따뜻한 가을 오전, 동춘정원에서 열리는 뮤지컬 메들리를 감상해보세요!
 관람방법 연수문화원 유튜브에서 실시간 상영
 관람비용 무료
 문의 연수문화원 생활문화팀 ☎ 032-821-6229

[연수문화원] 2021 연수프린지페스티벌
안골마을의 나른한 오후

공연팀 피아니스트 김경민(또모 아티스트)
 일시 2021.12.8.(수) 19:30
 공연내용 나른한 오후, 안골마을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콘서트를 함께 감상해보세요!
 관람방법 연수문화원 유튜브에서 실시간 상영
 관람비용 무료
 문의 연수문화원 생활문화팀 ☎ 032-821-6229

[연수문화원]

<제 77기 겨울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교육장소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교육기간 2021.11.30.(화) ~ 2022.2.28.(월) (강좌별 상이)
 모집기간 11.29.(월) 오전10시 ~ 강좌별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온라인(연수문화포털) 또는 연수문화원 방문접수
 문의 연수문화원 교육사업팀 ☎ 032-821-6229

[연수문화원] 창작동아리 기획전시 '취미공감'

연수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수채화, 서각, 사진 등 시각예술 창작 동아리의 기획전시
 전시기간 2021.12.17.(금) ~ 12.30.(목)
 전시장소 청학문화센터 1층 전시실
 관람시간 평일 10:00 ~ 17:00 (일, 월 휴관)
 토요일 9:30 ~ 16:30
 관람비용 무료 관람
 문의 연수문화원 교육사업팀 ☎ 032-821-6229



[인천도시역사관] <2021 도시를 보는 작가>전

주위의 익숙한 풍경을 한국화로 그린 작품 전시
 일시 2021.11.23.(화) ~ 12.19.(일)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
 참여작가 이현호 작가
 문의 ☎ 032-850-6030

[인천도시역사관] 기증유물 특별전

양은洋銀, 반짝이는 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1960~80년대 도시의 부역을 점령한 신소재 양은식기 조영
 기간 2021.09.14 (화) ~ 2021.12.12 (일)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2층 아암홀
 문의 ☎ 032-850-6000, 6014

[선학별빛도서관] 테마마당 운영

구분	일시	장소	비고
토요 별빛극장	12. 4.(토) 14:00	4층 천체투영관	천문동영화 상영
토요 별자리여행	12. 4.(토) 15:15		별자리설명+단편동영상
일요 동영상	12. 12.(일)/12. 26.(일) 14:00		단편동영상 상영 및 해설
일요 별자리여행	12. 12.(일)/12. 26.(일) 16:00		별자리 설명

문의 도서관정책과(선학별빛도서관팀) ☎ 032-749-6713

※ 예약 :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신청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이용 좌석 대비 30%만 착석가능

[선학별빛도서관] 과학문화행사

권오철 작가와 떠나는 『북극권 오로라 여행』

일시 2021. 12. 18.(토) 15:00~16:30
 강사 권오철 작가(천문동영화 '생명의 빛 오로라' 제작자)
 장소 선학별빛도서관 4층 천체투영관
 접수기간 2021. 12. 3.(금)부터
 접수방법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신청
 (http://www.yspubliclib.go.kr/)

문의 도서관정책과 선학별빛도서관팀 ☎ 032-749-6713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가능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영화마당 운영

1) 매주(토) 15:00

구분	장소	문의
연수청학도서관	지하1층 공연장	032-749-8264
해돋이도서관	2층 해돋이홀	032-749-6950

2) 매주(일) 15:00

구분	장소	문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2층 공연장	032-749-8220
선학별빛도서관	4층 천체투영관	032-749-6713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이용 좌석 대비 30%만 착석가능

Library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비대면프로그램 '용돈드립니다'

일시 2021. 12. 1.(수) ~ 12. 20.(월)
 대상 지역 내 9~19세 청소년
 장소 온라인 플랫폼(ZOOM, 인스타그램)
 활동내용 자기계발 활동, 가족협력 활동 등의 미션참여, 미션활동 인증, 연청마켓(모인 용돈-가상머니를 통한 물품교환)
 비고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www.pot0924.org
 문의 청소년사업팀 ☎ 032-83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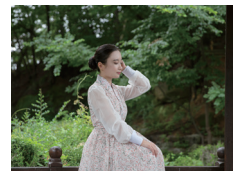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YGLP 9기 아카데미

일시 2021. 12. 12.(일) ~ 2022. 3. 06.(일)
 대상 인천시 내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0명 내외 (연수구 지역 우선선발)
 장소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및 오스트리아
 활동내용 국제 활동 이해, 국제 활동가와의 만남, 청소년 토론회 개최, VIC(IAEA)방문 및 종사자와의 만남, 외교관과의 만남, 글로벌CEO와의 만남, 국내외 구호 단체 탐색, 구호 활동 내용 기획 및 진행
 비고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www.pot0924.org
 문의 청소년사업팀 ☎ 032-833-2012

[연수문화재단] 2021 PLAY IN 아리따움

연수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 까지 'PLAY IN 아리따움'이라는 한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복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가능한 대학생 디자인을 발굴·양성할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모델, 촬영팀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한다. 개항 이후 밀려든 근대문물은 우리나라 복식문화를 빠르게 변화시켰다는 것에 착안해 시작한 상상유니브 인천운영사무국의 지역대표프로그램이다. 전통의 새로운 해석으로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기능적으로 변모해가는 복식문화의 흐름과 한복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근대기 복식의 면모를 드러낸 한복의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패션쇼 대신 영상촬영만 진행됐다.

문의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 070-4169-6469

주최·주관 KT&G 상상유니브 인천운영사무국



쇼케이스

Culture



텅 비었던 공간이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

의미가 더해진 공간의 변신

Transformation of space with added meanings
Culture and arts planted in a former empty space
in the neighborhood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준공될 새로운 청사를 기다리며 이용하는 임시 청사다. 임시로 마련한 공간이지만 주민을 위한 편의를 놓치지 않고 지난 6월부터 스마트 도서관을 마련했다. 스마트 도서관은 24시간 휴일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에 방문이 힘든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시설이다.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기기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도 가능하다. 연수구립공공 도서관 통합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 3권 이내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앞 텅 비었던 공간을 주민들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제공해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다.

The current Songdo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scheduled to have moved into a new office building by 2024. Even though it is currently in a temporary location, the center does not make any compromises relating to the convenience of the Yeonsu-gu's residents. One example is its Smart Library, which has been open since June. The Smart Library is available 24/7 which has been widely welcomed by resident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public libraries during the day. Residents can use the library machine (book dispenser) to borrow or return books at their own convenience. Utilizing the Integrated Membership of Yeonsu Public Libraries the patron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for up to 15 days. A smart library has also been installed in a vacant plot of land in front of the Songdo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Residents can now conveniently borrow books from the center in close proximity to their homes without the hassle of having to travel great distances to visit public libraries.

텅 비었던 공간이 잠시 머물러 가도 좋은 문화 공간으로 변신해 주민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철역 앞, 행정복지센터 앞처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문화'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더했다. 관심 받지 못하던 공간을 일대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한 공간들을 방문해봤다.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seeing the space outside of the subway station or a community service center? Even though these areas are often frequented by visitors, they serve the citizens as no more than mere 'vacant' spaces. Yeonsu-gu has endeavored to transform the landscape by adding 'culture' to these underutilized areas. Let's explore several examples of how Yeonsu-gu has been transforming these neglected areas to become the vibrant and versatile art and culture hubs they are today.

글·사진 최유정 연수한마당 기자
Written and Photographed by
Choi Yoo-jung, Yeonsu Hanmadang Reporter

송도 4동,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스마트 도서관

Songdo 4- and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Yards Transformed into a 'Smart Library'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Songdo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42, Convensia-daero 230beon-gil, Yeonsu-gu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Songdo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01
501, Incheon Tower-daero, Yeonsu-gu

버려진 지하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507문화병커&진달래문화센터

507 Cultural Bunker & Azalea Living Culture Center - From an Abandoned Basement to a Space for Culture and Convenience of Yeonsu-gu Citizens



507문화병커 생활문화센터
507 Cultural Bunker Life and Culture Center
연수구 청학동 507, 연수동 651 경계 연수고가차도 지하보도
between 507, Cheonghak-dong, and, 651, Yeonsu-dong,
Underground walkway of Yeonsu Overpass
진달래생활문화센터
Azalea Living Culture Center
연수구 청학동 507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Underpass in front of Cheonghak Middle School, 507
Cheonghak-dong, Yeonsu-gu

원인재역 거리에서 공공미술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하철역 2번 출구로 나와 둘레길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 새로운 조형물이 작은 야외 미술관을 떠올리게 한다. 기차를 기다리는 소년이 앉아있는 조형물은 <진구>라는 작품이다. 본래 송도역전시장에 설치되었던 연수문화재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으로 송도역 앞 광장으로 임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원인재역 앞으로 찾아왔다. 대합실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소년의 벗겨진 신발과 누군가 신겨준 분홍 양말, 그리고 귀마개를 한 모습이 인상 깊은 작품이다. 송도역전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며 기차를 기다리는 소년 옆에 앉아 사진 한 컷을 남겨도 좋을 장소가 됐다.

The surrounding streets of Woninjae Station have now become an exhibition space for public artwork for all to enjoy. Departing at this station, take Exit 2 and turn towards the Trekking Routes. You will be welcomed by an impressive new installation as if you were at a small outdoor art gallery. The installation, titled 'Jingu', draws your attention to a boy who is waiting for his train. Before eventually being transferred to its current location, installation was placed at the Museum of Songdo Station after being created as part of a public art project by the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eemingly waiting for someone to sit next to him, stripped of his shoes, the boy is wearing pink socks and earmuffs, which obviously have been put on by some viewers. You can also enjoy reading the stories of the merchants who have been doing business since 1960s at the Songdo Station Market, and perhaps try sitting next to the boy and taking some pictures with him for your memorable moment.

노후해 발길이 끊기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지하보도를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한 공간들이 있다. 지하철 연수역 건너편의 '507문화병커'는 외면받던 지하 통행로인 연수고가 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새로 단장해 작년 말 개관한 곳이다. 또 진달래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를 활용한 주민편의공간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모임 이용이 가능하고, 공연연습실과 다목적실, 방음부스 등에서 일상의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 됐다.

As underpasses and sidewalks age they lead to increasing health and safety risks, as well as accidents. However,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se underpasses have been renovated as culture and convenience hubs for residents. One of them is the underground walkway of Yeonsu Overpass. The end of 2020 welcomed the opening of '507 Cultural Bunker', a Life and Culture Center which had been losing the interest of residents in the past few years. Another example is the Azalea Living Culture Center built at Cheonghak Underpass in front of Cheonghak Middle School. Opened in 2017, the center has become a public facility for the expediency of the residents living there. In compliance with the downgraded restriction levels of the COVID-19 preventive social distancing, they now offer residents' small group activities in addition to providing space fo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performance practice rooms, multi-purpose rooms, and soundproof booths.

원인재역 앞이 공공미술 작품 감상 공간으로

Woninjae Station Transformed into a Public Art Appreciation Space



연수구 경원대로 285 지하철 원인재역 2번 출구
Exit 2, Woninjae Station, 285
Gyeongwon-daero, Yeonsu-gu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탄생,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응모방법

- 연수구 공식SNS(인스타그램 @togethereyeonsu)를 팔로우한다.
- 본인 계정에 아기사진과 함께 #연수한마당을 해시태그하여 업로드한다.
- 인스타그램 DM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면 신청 완료!
아기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버지 어머니 이름, 연락처, 주소(상품권 받으실 곳),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여부
- 아기탄생 기념 축하사진을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상품권 미수령 등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장난감 무료대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취학 전 영유아(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인천시민, 임산부, 위탁가정, 인천 소재 직장근무자(재직증명서 첨부)

가입서류 회원가입 신청서, 이용 자녀 등재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산모수첩 위탁가정 확인서

이 용 료 연회비-10,000원 / 대여료-무료

이용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18:30

휴 관 일 매주 일요일·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문 의 연수구청점 ☎ 032-749-6766~7

송도점 ☎ 032-719-8260 / 옥련점 ☎ 032-715-7430

연수구 임산부 마더박스(Mother Box)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수구인 임산부

지급내용 1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 (택1)

기본세트(6종):비접촉식체온계, 로션, 역류방지 쿠션, 신생아 손톱가위 세트, 건타슈, 신생아 면봉
외출세트(5종):아기띠, 유모차 라이너, 방부가제 손수건, 실리콘 과즙망, 이유식용기 세트

수령방법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로 택배 배송

신청방법 정부24, 연수구 보건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임산부 등록 시 1회 신청 가능, 다태아 임신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및 사산의 이유로 재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가족
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사항 출산보육과 ☎ 032-749-7732

다른 연수를 찾아라!

연수구의 멋진 전경이 담긴 사진 속 **다른 부분 5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명의 독자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청학문화센터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다른 그림 찾기 응모] 게시판에 응모해주세요.

응모방법 QR코드 스캔 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 참여·알림 - 구청소식지 - [다른 그림 찾기 응모]

※ 회원가입 후 응모 가능, 인적사항 기재 오류로 인한 상품권 미수령 등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홈페이지 오류 등으로 게시판 응모 불가 시 이메일 응모 가능(yeonsuhanmadang@korea.kr)

응모기한 2021년 12월 10일까지

문 의 홍보미디어실 ☎ 032-749-7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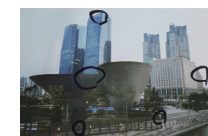


QR코드
찍어서 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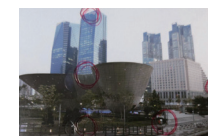
지난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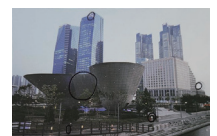
노영(청량로)



원아영(송도문화로)



송소영(경원대로)



박미희(원인재로)